

한·미 간 항공보안 협력 본격 추진

- 어명소 차관, 미 국토안보부와 미국행 수하물 원격검색 논의 -

□ 국토교통부 어명소 차관은 3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디미트리 쿠스니조브(Dimitri Kusnezov) 과학기술담당 차관과 만나,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인천발 애틀란타행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시스템(CVAS*)의 시범운영 방안과 항공보안장비 상호인정 계획을 논의하고 양국 간 항공보안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.

* Common Viewer Air System/인천발 애틀란타행 수하물 검색정보를 미국 국토안보부와 공유→미국은 항공기 도착 전 검색 완료→애틀란타 공항 도착 후 수하물 검색 면제

□ 양국은 2010년부터 매년 항공보안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보안 이슈와 기술을 공유해 왔다. 특히, 2020년 미국의 제안으로 미국 공항에서 세계 최초로 미국행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 검색을 원격으로 추진하는 시스템(CVAS)을 인천-애틀란타 구간에 시범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.

○ 이에, 2021년 모의수하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시스템의 기술성능을 실증하였고 현재 실제 수하물을 대상으로 2차 시범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.

○ 양국은 이날 면담에서 CVAS 시범운영을 조속히 착수하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, 이 과정에 항공보안 수준의 향상과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 함을 공감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“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간 항공보안 수준에 대한 신뢰와 수하물 원격검색시스템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” 며, “미국과 시범운영 방안을 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, 이 사업을 통해 보안 검색의 정확도와 승객 편의가 함께 높아짐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” 고 밝혔다.

- 디미트리 쿠스니조브 차관 역시 “CVAS는 양 정부, 델타항공, 대한항공,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국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미있는 사업”이라며,
- “여객수요 증가, 테러 위협 등 여건 변화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궁극적으로 여객 편의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” 고 화답하였다.

2023. 3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